

■ 원고청탁 요청 안내문

1. 원고 방향

- 전체 교재 기획 중 1장 <사회문화> 분야 양성평등 실천 사례 (교재 기획(안) 참조)
 - 특히 필자의 여성 발전(양성평등)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의 경험 중 일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 ※ 구체적인 사례 1~2가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나열·선명식이 아닌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수기형식의 글 요망**

2. 원고 분량

- 원고지 16매 내외(A4 기준 25매 이내 : 글자 11 포인트)

3. 원고 제출 기한

- 2004. 12. 28(화)

4. 제출 서류

- 원고 : 한글 HWP 파일 (별첨 1. 참조)
- 사진 : 본인이 포함된 다양한 활동 사진 1장(인화형태의 사진)
※ 증명사진보다는 원고 내용 관련 사진 요망
- 교재원고 관련 기재사항 1부 (별첨 2. 참조)
- 약력카드 1부(별첨 3. 참조)

※ 제출방법

- 원고 : 이메일 송부 (mhjeon@kigepe.or.kr)
- 사진 및 교재원고 관련 기재사항, 약력카드 : 우편발송 요망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정책교육과정 담당자 전미현 앞 (122-040)

5. 원고료 지급 : @원고지 1매 X 10,000원

약 력 카 드

성 명	박 영 숙			
소 속	한국여성재단	연락처 및 E-mail	[REDACTED]	
부 서			(휴대폰)	-
직 위	이사장		(E-mail)	[REDACTED]
주요 경력 (중요도 순)	① 1999년 12월 -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② 1992년 7월 - 2004년 2월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2004년 3월 - 현재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③ 1998년 4월 - 현재 통일문제 대통령고문회의 고문 ④ 1999년 6월 - 현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⑤ 2002년 10월 - 2003년 5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⑥ 1988년 - 1992년 제13대 국회의원			
포상경력 (중요도 순)	① 2004년 6월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② 1998년 7월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③ 2001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자랑스런 이화인상" ④ 2000년 10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⑤ 1992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상" ⑥ 1990년 12월 환경기자클럽 선정 "올해의 환경인상"			
주요 저서 (중요도 순)	녹색을 심는 사람들(1992)			
특기사항 (원고내용 관련)				

■ 2004년도 교재 < 양성평등, 실천하니 좋아요(가제) > 기획(안)

1. 1장

- 가. < 법과 제도 >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사례
- 나. < 일터 >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사례
- 다. < 가족 >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사례
- 라. < 사회문화 >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사례

2. 2장 : < 교육 > 분야의 양성평등 실천 사례

- 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현장 교육생 수기 등

< 참고 >

□ 2003년도 교재 < 양성평등, 알고보면 쉬워요 > 주요 내용

1. 제도적 평등을 위한 실천 사례

- 주요 필진 : 한명숙 의원, 이미경 의원,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김종량 행정연구원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등

2. 분야별 양성평등 실천 사례

- 주요 필진 : 이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배정충 삼성생명 대표,
이경자 소설가, 윤원석남 화가 등

(가제)한국여성재단과 양성평등사회

지난 12월 6일, 한국여성재단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제 막 다섯돌을 맞이한 한국여성재단은 이 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태동한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1999년 말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어떤 역사는 몇 사람이 차 한잔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싹튼다고 한다. 한국여성재단의 탄생은 몇몇 여성운동 선배들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봄, 세천년을 눈앞에 두고 평생 평등한 세상을 꿈꾸어온 몇 사람들이 모여, 우리 후배 여성운동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예의없이 쥐고 있는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 '여성기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그 뜻을 공개적으로 펴기 시작한 것은 그 해 9월 1일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서 부터였다. 바로 그 달 15일에는 11명의 여성계 원로, 124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범여성계가 (가칭)한국여성기금의 발족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사천리로 그 해 12월 6일 드디어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각계 각층 57명의 남녀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여성기금 조성'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1000억원은 모금해야 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당사가 IMF 사태의 어려운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만한 목표였지만, 여성도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다.

지난 5년간 여성재단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22만여명의 평등지킴이들을 만나왔고, 이들이 전장한 미래를 위해 십시일반 조성해준 여성기금이 8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우리의 열망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소중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우리사회 성평등사회 조성과 소외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214개 사업에 약 17억여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공익적 활동은 한국여성재단의 파트너 단체들인 여성단체들의 무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행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몫이기

도 하지만, 이 일을 실제 국가가 이행했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사회적 파급력과 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가끔 왜 여성재단의 기금은 자라지 않는다고 질문한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의 일인당 평균 기부금이 2800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은 참으로 척박하기만 하다. 물론 불우 이웃에 대한 나눔의 문화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온정'이라는 유산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넉넉한 데 비해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하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공익을 위해 흔쾌히 가졌던 것을 폐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내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이기도 하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재단이 무엇보다 우리사회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는 그 양적인 확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부문화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질적인 내용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어있는 소위 선진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자선행위(Charity)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 파트너십을 전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자재를 변혁하기 위한 자발적 사회공헌(Philanthropy)이라는 공익적 기부문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도 없어서는 안되지만 사회 자재를 변혁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우리사회에서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여성재단이 수행해온 다양한 방식의 모금활동은 우리사회 공익적 기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변화시켰던 다양한 사례 중에 지난 17대 총선기간 동안 여성재단이 범여성계와 함께 진행했던 '맑은정치여성기금' 조성도 그 좋은 예다.

당시 우리사회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 대선자금 비리가 연일 터지고, 당리당략에 빠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견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치개

력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 17대 총선은 여러모로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중요한 기회였다. 여성의 국회 진출이 5.6%에 불과한 16대 국회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남은 정치 청산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새 판을 짜는데 여성의 국회 진출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적 사회종도와 돈과 조직에서 절대적 열세에 처해있기에 능력이 있어도 정치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남성들이 적극적인 연대의 힘을 발휘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역사적 대세였으리라. 여성계는 17대 총선을 한국사회 여성정치세력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이력으로 연대하여 여성후보를 발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가 하면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 선거관련 제도 개혁과 여성유권자운동을 펼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뜨거운 움직임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한국여성재단도 일찌감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여성정치세력화에도 많은 좋은 돈이 필요하다. 수백억 정치자금 비리가 연일 터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돈과 조직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맑은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은 정치자금 조성에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모금활동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와 함께 재단 내에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총선시기 다양한 여성유권자 운동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의 모델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2004년 총선기간동안 범국민적 대중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모금 이벤트와 언론홍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작은 실천들을 모아 약 5천 2백만원이라는 기금 조성의 성과를 올렸다. 작다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금이지만, 이 기금은 총선시기에는 여성단체 유권자 캠페인에, 총선 후에는 17대 총선시기 여성계 활동을 정리하는 연구작업과 현재 17대 국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소중히 쓰여지고 있다. 물론 맑은정치여성기금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의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여성후보들에게 직접 후원을 하는데 쓰이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여성유권자 캠페인을 통한 간접 후원을 통해서 17대 국회에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을 입성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고 믿는다. 동시에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간 정치자금 조성이라는 역사적인 사례를 남겼다.

한편, 맑은정치여성기금 조성의 경험은 여성재단에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 진출할 여성지도력을 세우면서 절실하게 절감한 것은 역시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많은 여성관련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역시 사람을 키워내는 일, 여성 리더십을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재단은

많은정치여성기금 조성의 축적된 경험 속에서 여성리더십을 키우는 새날기금 조성
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미래포럼'을 출범시켰다. 미래포럼
은 우리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여성의 지도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책을 내
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실, 여성재단 모금활동 그 자체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평등지킴이들과 합
께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여성재단에는 일반시민
이 참여하여 나눔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창구가 열려있다. 산부인과에서
새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모성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새생명 새희망 의료
계 공동캠페인, 기업 상품수익의 일부를 여성공익에 환원하는 기업공동캠페인, 결혼
식장에서 평등부부를 선언하며 축의금의 1%를 나누는 웨딩나눔, 자신의 시간을 기
꺼이 나누는 고양이손 캠페인,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가게에서는
판매수익의 일정액을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와 가게 이름으로 여성공익에 기여
하고, 은행,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일반 가정에서는 동전모금함을 설치하여 희망의
동전을 모으고, 5월 한달간 집중모금 캠페인 기간에는 100인의 이름이들을 시작으
로 매일 한명씩 여성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선독하여 릴레이로 기부자를 추천하
는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부란 돈 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아이디어 등을 나누는 것
으로서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은 없다'. 양성평등
한 세상을 구현하는 일, 결코 거창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의지만 있다면 자신
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 실천해보자. 그 작은 실천은 바로 더
불어 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나눔의 행열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이 정당하고 옳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현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양성평등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성재단도 한자리에
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가제)한국여성재단과 양성평등사회

지난 12월 6일, 한국여성재단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제 막 다섯돌을 맞이한 한국여성재단은 이 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태동한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1999년 말 '말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어떤 역사는 몇 사람이 차 한잔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싹튼다고 한다. 한국여성재단의 탄생은 몇몇 여성운동 선배들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봄,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평생 평등한 세상을 꿈꾸어온 몇 사람들이 모여, 우리 후배 여성운동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예외없이 겪고 있는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 '여성기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그 뜻을 공개적으로 펴기 시작한 것은 그 해 9월 1일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서 부터였다. 바로 그 달 15일에는 11명의 여성계 원로, 124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범여성계가 (가칭)한국여성기금의 발족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사천리 그 해 12월 6일 드디어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각계 각종 57명의 남녀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여성기금 조성'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억원은 모금해야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당사가 IMF 사태의 어려운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만한 목표였지만, 여성도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다.

지난 5년간 여성재단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22만여명의 평등지킴이들을 만나왔고, 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십시일반 조성해준 여성기금이 8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우리의 열망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소중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우리사회 성평등사회 조성과 소외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214개 사업에 약 17억여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공보통해 선정된 이 공익적 활동은 한국여성재단의 파트너 단체들인 여성단체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행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수행해야할 몫이기

도 하지만, 이 일을 실제 국가가 이행했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사회적 파급력과 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은 분명하다. 은지

사람들이 가끔 왜 여성재단의 기금은 자라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의 일인당 평균 기부금이 2800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은 참으로 척박하기만 하다. 물론 불우 이웃에 대한 나눔의 문화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은정'이라는 유산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넉넉한 데 비해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하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공익을 위해 흔쾌히 가진 것을 패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내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이기도 하다.

기금 모금의 목표달성은 아직 먼 곳에 있지만 재단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것은 2002년부터 재단의 모금활동 중점이 여성기금 모금에서 사업 지원금 모금으로 크게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수익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금운용방식이 은행이자에 의존하는 것인데, 은행금리가 하강세로 치달고 있어서 기금축적의 의미가 없어진 데 기인한다. 은지

재단의 존재이유는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좀더 많은 단체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현재 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업별로 기부를 받는 것이다. 의미와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영역을 개발해서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기부자를 찾는 일, 예를 들면 재단에서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단체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박봉과 격주로 소진된 여성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로 좋은 호응과 평가 속에서 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공동사업으로 향후 몇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한다는 재단의 초기 미션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결과, 언제부터인가 여성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여성들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창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여성재단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는가 하면, 여성단체들도 재단이 존재한다는 사

실 그 자체가 격려가 된다고 한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재단이 무엇보다 우리사회 전천후한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진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전천후한 기부문화는 그 양적인 확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부문화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질적인 내용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난에 의한 피해자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며 사후적인 기부풍토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전천후한 기부문화가 뿌리깊게 내려져있는 소위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가 일상화되어 있고 기부 내용도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부행위는 자선(Charity)과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된다. 자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행위라면, 사회공헌은 돈 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Dr} 그의 저서 <미래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바 있는데, 이는 점차 우리사회 기부 패러다임이 자선행위(Charity)에서 사회공헌활동(Philanthropy)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행동도 없어서는 안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 자체를 변혁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역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여성재단의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이런 사회공헌(Philanthropy) 활동으로서의 많은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맑은정치여성기금을 조성했던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집중모금 캠페인 기간에는 매일 한 명씩 릴레이로 기부자를 추천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여성리더십 육성을 위한 새날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상시적인 나눔의 창구도 열려있다. 산부인과에서 새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모성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새생명 새희망 의료계 공동캠페인, 기업 상품수익의 일부를 여성공익에 환원하는 기업공동캠페인, 결혼식장에서 평등부부를 선언하며 축의금의 1%를 나누는 웨딩나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고양이손 캠페인,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가게에서는 판매수익의 일정액을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와 가게 이름으로 여성공익에 기여하고, 은행,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일반 가정에서는 동전모금함을 설치하여 희망의 동전을 모을 수도 있다.

기부란 돈 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아이디어 등을 나누는 것으로서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은 없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는 일, 결코 거창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 실천해보자. 그 작은 실천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롭게 하는 다양한 나눔의 행열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이 정당하고 옳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양성평등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성재단도 한자리에 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